

필립스, 라이트온 광 저장장치 조인트 벤처 설립

광 저장장치(ODD) 분야의 '빅딜'이 새해 벽두를 달구고 있다.

대만 라이트온은 최근 필립스와 공동으로 조인트 벤처를 설립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 벤큐 ODD사업 부문을 인수하고 전세계 시장 점유율 2위 업체로 부상한 라이트온은 ODD 관련 가장 많은 특허를 가진 필립스와 다시 손잡으면서 1위 자리를 위한 공격 경영에 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지난 해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 1위인 히타치와 LG전자 합작사인 '히타치LG데이터스토리지(HLDS)'와 치열한 수위 다툼이 불가피해졌다.

라이트온은 필립스와 벤큐 합작사인 '필립스벤큐디지털스토리지(PBDS)'의 벤큐 지분 49%를 인수하는 형태로 조인트 벤처를 만들게 된다. 새 합작사는 '필립스라이트온디지털스토리지(PLDS)'로 전해졌다. 인수 가격은 5600만 달러이며 라이트온은 필립스에서 자동차 디스크 드라이브를 생산해 온 헝가리 공장까지 인수키로 했다. 로이터 등 주요 외신은 이번 딜은 벤큐 그룹의 구조 조정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SED TV, 너무 비싸 LCD TV와 경쟁 안돼



일본 도시바와 캐논이 공동 개발한 'SED(표면 전도형 전자방출 디스플레이) TV' 미래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대형 평판TV 시장의 한 축을 형성할 것이란 당초 기대와 달리 비집고 들어갈 틈조차 잘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도시바도 이를 인정할 정도다.

대만 디지털타임즈는 마이니치신문의 보도를 전제해, 니시다 아쓰토시 도시바 최고경영자(CEO·사진)는 SED TV가 가격이

비싸고 한정된 물량 때문에 LCD TV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없음을 인정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니시다 CEO는 "앞으로 비즈니스 시장을 타깃으로 SED TV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히며 "50인치 이상 평판 TV 시장에서 20~30%를 점유하겠다는 2004년 전망도 수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SED TV가 아직 출시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SED TV 보루로 여겨지던 50인치 이상 대형 TV 시장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상황이 아님을 보여줘 SED TV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비즈니스2.0에 따르면 50인치 대 SED TV의 예상 가격은 약 930만원(1만달러)으로 1월 현재 610만원에 팔리고 있는 52인치 LCD TV보다 훨씬 비싸다.

일정이 연기돼 올 연말에나 나올 것으로 알려졌던 첫번째 SED TV는 예상보다 일찍 출시될 예정이다. 니시다 CEO는 "올 봄에 50인치 SED TV를 출시하겠다"고 밝혔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100달러짜리 노트북PC



'비즈니스2.0' 등 주요 IT전문지에서 빠짐없이 꼽은 새해를 달굴 15대 품목의 하나인 개발도상국 어린이를 위한 100달러 노트북을

미국 캠브리지 매사추세츠 연구소 제임스 게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부사장이 시연해 보이고 있다.

교육용 초저가 노트북 나온다

미국 MIT 니콜라스 네그로폰테 교수가 추진 중인 초저가 노트북PC가 교육용 제품으로 특화해 출시될 예정이다. '모든 아이

들마다 한 대의 노트북(OLPC)' 프로젝트 일환으로 전 세계 초미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이 제품은 이르면 상반기부터 개발도상국가에 주로 보급되며 가격이 100~150달러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말 처음으로 상용 제품이 공개됐으며 막바지 소프트웨어 소팅 작업이 진행 중이다.

'XO'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이 제품은 원래 기대와 달리 일반PC 기능을 크게 줄이고 대신에 교육에 초점을 맞췄다고 AP는 전했다. 흔히 상상하는 PC 보다는 교육용 단말기 성격이 더욱 짙다는 것



2999달러 60인치 PDP 출시

'3000달러 벽'을 허문 60인치 PDP TV가 출시된다.

미국 TV 제조업체인 비지오(Vizio)는 다음달 60인치 PDP TV를 2999달러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C넷이 12월 7일 보도했다.

이 TV는 우리나라 돈으로 채 300만원이 안 되는데,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50인치 PDP와 유사한 가격이다. 신제품은 대형 PDP TV에서 채택되고 있는 1080p보다 낮은 720p(1366×768)의 해상도를 지원하지만 비슷한 화면 크기와 해상도를 제공하는 파나소닉과 파이오니어 제품보다도 훨씬 싸다.

해상도만 조금 낮을 뿐 최신 기술인 HDMI단자를 4개나 갖췄으며 2개의 컴포넌트도 내장됐다. 또 480부터 1080p 신호를 수신할 수 있고 7000대 1의 명암비율과 1200칸델라의 휘도를 지원,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편이다.

최근 북미 시장에서 급부상 중인 비지오

는 이를 통해 TV 시장 공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2003년부터 TV 시장에 진출한 비지오는 회사와 브랜드가 낯설지만 지



난 3분기 북미 PDP 및 LDC TV 시장에서 HP나 델보다 더 많은 TV를 판매해 10위에 올랐다. 비지오는 올해 80만대의 TV를 출하해 총 8억달러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MS-포드 음성 인식 자동차 생산



마이크로소프트가 포드 자동차에 탑재할 예정인 차량용 소프트웨어 '싱크(Sync)'의 세부 내용이 공개됐다.

1월 7일싱크가 음성 인식을 기반으로 작동하며 휴대폰과 MP3플레이어와 연동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소개했다. 블루투스 휴대폰이 있으면 싱크를 통해 핸드프리 통화를 할 수 있고 휴대폰에서 연락처를 불러와 전화를 걸 수도 있다. 또 수신된 문자 메시지도 휴대폰을 꺼낼 필요 없이 운전자에게 읽어준다. MS '준'뿐만 아니라 애플 '아이포드' 과 같은 MP3플레이어를 싱크와 연결하면 운전자가 MP3를 조작하지 않아도 음성으로 원하는 장르의 음악·가수·노래 등을 선택하는 기능도 있다.

포드는 올해 12종 자동차에 싱크를 탑재하기로 했다.

구글, 올해 나스닥 권장주식 1위

올해 나스닥에서 가장 주목되는 주식은 구글이라고 컨설팅업체 파이퍼 제프리 앤드 코가 12월 3일 전망했다. 파이퍼의 사파 라시치 애널리스트는 "인터넷 유저를 조사한 결과 구글이 지도 및 서적 검색에서부터 블로그 툴에 이르기까지 높은 브랜드 친밀도를 창출했음이 확인됐다"면서 "서비스가 추가되면 유저들이 더 몰려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라시치는 이에 따라 구글의 목표주가를 당초 주당 600달러로 책정했던 것을 630달러로 높였다고 밝혔다. 또 2008년 수익이 주당 16.59달러 골인 142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지난해 나스닥에서 460.48달러에 거래가 마감돼 한해간 11% 상승했다.

대시 내비게이터, 야후 지역검색 제공

내비게이터 업체 '대시 내비게이션'은 야후 지역 검색 데이터를



를 자동차용 내비게이션 장치에 담을 계획이라고 1월 3일 발표했다. 이 회사 '대시 익스프레스' 내비게이터는 야후 지역 검색을 이용해 행사·사업·서비스·제품 등을 비롯한 야후 사용자의 제품 리뷰와 평가점수 등을 검색할 수 있다. C넷은 GPS 내비게이터 업체 중 '야후 지역검색'을 GPS 장비에 통합하는 것은 이 업체가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이 회사는 '대시 익스프레스' 라는 내비게이터를 올 봄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가을엔 미국 전역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이 제품은 1월 8일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되는 세계가전쇼(CES)에서 첫 선을 보인다.

새해 LCD TV 시장 성장세 둔화 전망

공급 증가에 따른 급격한 판매가격 하락으로 인해 새해 LCD TV 시장의 성장세

가 둔화될 전망이다이라고 시장조사업체 아이서플라이를 인용해 EET타임스가 지난해 12월 27일 보도했다.



아이서플라이는 내년 전 세계 LCD TV 제조업체 매출이 535억달러로 올해 447억달러보다 20%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여전히 높은 수치지만 올해 LCD TV 시장이 무려 76%라는 경이로운 증가율을 보인데 비하면 크게 낮아진 것이다.

LCD TV 출하량 역시 올해 3970만대에서 내년 6250만대로 57% 상승하지만 올해 증가율 95%에는 턱없이 못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LCD TV 시장은 대형 제품 위주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성장 기초를 꾸준히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아이서플라이의 리드히 파텔 TV시스템 담당 수석 애널리스트는 "LCD TV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진데다 패널 공급업체들이 7~8세대 생산라인 가동을 확대하면서 대형 LCD TV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새해에는 LCD TV 업체들이 특히 40인치 이상 대형 제품 보급에 주력할 것"이라며 "40~41인치 TV 출하량이 올 4분기 140만대에서 내년 4분기 230만대로 전년 대비 60.3% 늘어나고 올해 59만 4000대가 출하된 42~44인치의 경우 내년 이맘때까지 87.7% 증가한 110만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이서플라이는 LCD TV의 평균판매가격(ASP)이 올해에 이어 새해에도 계속해서 떨어질 것으로 관측했다.